

# 유권자 34%만이 “재신임”... 민심 싸늘

## 지역 국회의원 평가해보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물갈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광주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재신임 하겠다는 지역 유권자는 평균 34.4%에 불과한 반면, 새로운 인물을 지지 하겠다는 답변은 평균 45.7%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양보와 회생을 전제로 한 야권대통합이나 야권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물갈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광주 국회의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 광주 유권자 내년 총선 물갈이 여론 거세

### 박지원 의원 의정활동·지지율 압도적 1위

내년 총선에 현직 국회의원이 출마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29.8%에 그친 반면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9.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박지원(서구 을), 조영택(서구 갑), 김재권(북구 을), 장병완 의원(남구)이 20%대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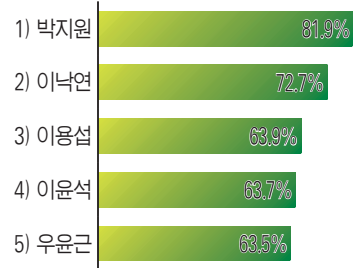
박지원(북구 갑), 김동철(광산 갑), 박주선 의원(동구)은 30% 초중반대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차기 총선에서의 교체 요구도 각각 40%대 중후반

을 나타냈다. 이용섭 의원(광산 을)은 차기 총선에서의 지지율과 교체 요구가 각각 40.3%로 동률을 이루,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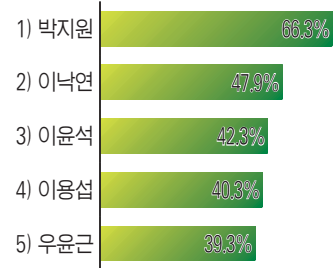
전남 유권자들의 현역 국회의원 지지율은 36.8%를 기록한 반면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교체 요구는 44%에 달했다.

전남지역 12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박상천(고흥·보성), 유선호 의원(장흥·강진·영암)이 20%대의 지지율을 보여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 ■ 의정활동 상위 5명



### ■ 총선 지지율 상위 5명



특히,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국회에 진입한 김선동 민주당노동당 의원에 대한 지지율도 20%대에 그쳐, 내년 총선 호남지역에서의 야권연대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김성곤(여수 갑), 최인기(나주·화순),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주승용(여수 을), 우윤근 의원(광양 시)이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교체 요구는 40%대를 상회했다.

이에 반해, 박지원 의원(목포 시)은 의정활동평가에서 ‘잘했다’는 긍정적 인 응답이 81.9%에 달했으며 지지율도 66.3%를 기록,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의 가운데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낙연(영광·함평·장성), 이문석

의원(무안·신안)이 예상을 깨고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 30%대의 새로운 인물 지지율보다 높았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평가에서는 응답자의 57.3%가 ‘잘했다’는 긍정 평가를 내린 반면 ‘잘 못했다’는 부정적 답변은 25.9%에 그쳤다.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이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낸 것은 현재의 ‘뜨뜻미지근한’ 정치력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 여론조사 어떻게 했다

### 19세 이상 男女 1만4800명 대상

### RDD방식, KT이외 전화도 포함

〈임의번호 걸기〉

광주일보가 실시한 이번 여론 조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평가와 재신임 여부는 물론 차기 대선 후보군에 대한 지지 흐름,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업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율 추이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 임의번호 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9세 이상 성인 남녀 1만4800명(광주 4800명, 전남 1만명)의 유효 표본을 생성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20곳을 대상으로하는 방대한 규모의 RDD 여론 조사는 국내 최초로 조사에만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무려 12일이나 걸렸다.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의 통화 연결 시도 총량은 64만명(광주 37만5000명, 전남 26만5000명), 표본 총량은 2만3991명에 이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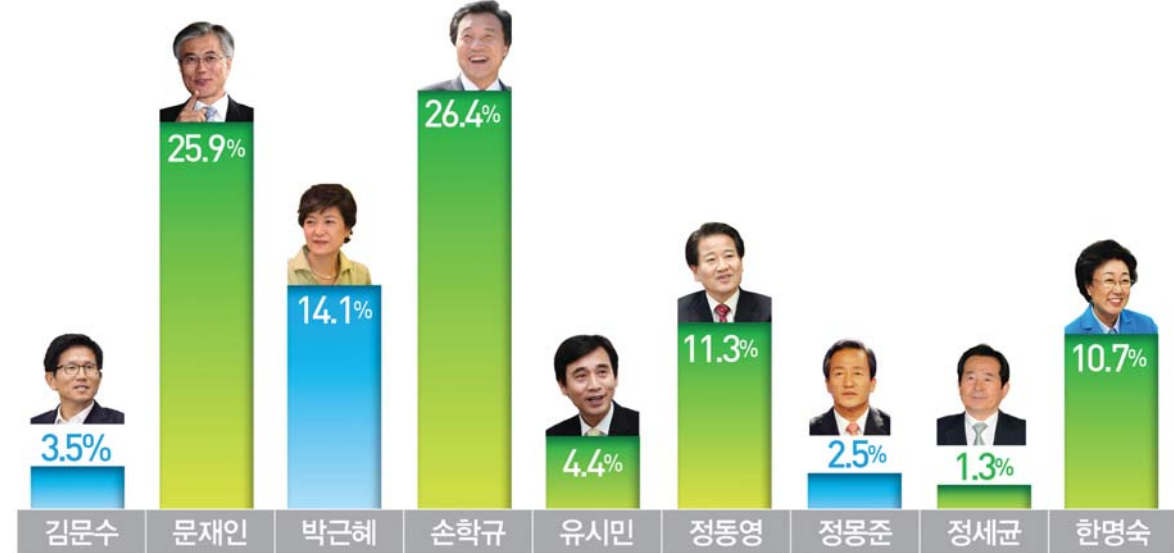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지역, 연령, 성비 등을 추출해 최종 유효 표본을 생성했다. 여기에 조건 불합치 등으로 조사가 중단된 사례도 3만3306건에 이르렀다.

RDD 방식은 광주와 전남지역 고유번호인 061~062의 지역 번호를 이용, 컴퓨터로 전화번호를 생성한 뒤 무작위 추출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며 KT에 전화번호가 등재되지 않은 유권자들까지 조사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일반 ARS 여론조사보다 정확성이 높다.

RDD 방식의 정확성은 지난 4월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순항한 리서치뷰의 여론조사 결과로 증명된 바 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광주가 ±1.4% 포인트이며 전남은 ±0.98% 포인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문재인 급부상에 손학규 기반 흔들

### 대선주자 지지도 살펴보니

광주·전남지역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급부상이다.

문 이사장은 25.9%의 지지율을 기록, 26.4%의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 0.5% 포인트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문 이사장과 지지층이 겹치는 한명숙 전 총리가 이번 여론조사에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만약, 10.7%의 지지율을 기록한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등으로 대선주자 후보군에서 제외된다면 광주·전남지역에서 문 이사장의 지지율은 더욱 상승할 개연성이 높다.

문 이사장은 이미 광주에서의 지지율이 30.2%로, 손 대표(24.5%)를 제친 것으로 집계됐다.

### 한명숙 전 총리 후보군서 제외됐 판도 변화

### 여권 대표 주자 박근혜, 지지율 14.1% 3위

손 대표의 지지율은 대선주자 후보군 가운데 가장 높았으나 문 이사장의 급부상으로 견고했던 광주·전남 지역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손 대표가 야권대통합과 정과 추후 정국에서 어떠한 정치적 리더십과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지지율은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 30, 40대에서 문 이사장이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손 대표는 50, 60대에서 30%대를 지지율을 보였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4.1%의 지지율

을 기록, 존재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총선 및 대선 국면에서 여야의 치열한 대결 구도가 전개된다면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한 자리 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11.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호남의 대선 주자로서 만만치 않은 저력을 나타냈다.

현장 중심의 진보주의 노선을 제시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는 정 최고위원이 추후 전개될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뒷심을 발휘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The new Audi A6

## 영향력을 만든다

**Progress, 영향력을 만드는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기술에서 The new Audi A6의 새로운 영향력은 시작됩니다. 견고한 강성과 15% 더 가벼워진 무게의 알루미늄 하이브리드 바디.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교한 드라이빙을 선사하는 멀티임 사륜구동 콤팩트. 운전자의 직관을 따르는 Head-up display와 MMI touch. 그리고 아우디의 기술적 혁신을 강렬한 LED 디자인으로 표현한 제논 headlight까지. 이것이 당신의 영향력을 만드는 Progress입니다. [www.gojin.com](http://www.gojin.com)

**Audi**  
Vorsprung durch Technik

신뢰의 이름 -  
아우디 **Gojin Motors**  
공식딜러 Since 2000

**광주전시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01-1 Tel. (062) 525-8777

## 20대 유권자들, 한나라당 선호 10%대 ‘눈길’

### 정당 지지율 분석

민주당이 64.7%의 지지율을 기록, 타 정당들을 압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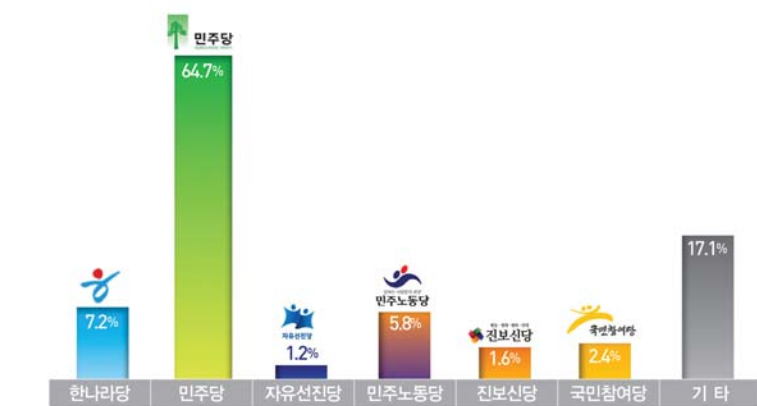
모든 연령대에서 50~6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고전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완연한 상승세다.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서구갑이 58%로 가장 낮았고 전남에서는 광양과 순천이 57%, 5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7.2%의 지지율로 전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대에서 10%대의 지지율을 기록, 주목을 끌었으나 타 연령대에서는 한 자리 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에서 나름대로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5.2%의 지지율을 기록하는데 그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에서는 서구와 남구에서 비교적 7%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전남에서는 순천과 광양에서 각각 9%, 8%대의 지지율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이들 지역은 차기 총선에서 야권연대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거론된 바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자유선진당은 1~2%대의 지지율을 나타내 지역 민심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차종 및 표본연령 · 차종명 아우디 A6 3.0 TFSI quattro (2.99cc: 184kg 차중 8인) · 연비 9.5km/L, CO2 배출량 240g/km, 45급 · 효율적 사용방법, 저속주행 ·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등에 따라 실제 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주문 사양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